

대선주자들의 불심잡기

10월 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국운옹성 평화통일 기원 천도대제에 대선 후보와 당 대표 등이 참석, 대선을 앞두고 '불심잡기' 경연을 벌였다. 10월 6일 열린 조계종 대웅전 해체보수 불사 고분설에도 정몽준, 권영길 후보가 참석했다.

10월 27일 대구 동화사 개산 1509주년 기념대법회에는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나란히 참석했고, 이회창 후보를 대신해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가 모습을 나타냈다. 같은 날 노무현 후보는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과 원로회장 도원스님을 각각 예방했다. 10월 30일에는 한나라당 불자회가 한 마을법회를 열면서 불교계 지도자를 대거 초청, 이회창 후보와 정경계 원당을 나누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런 자리에서 대선 주자들은 자신이 가장 친불교적이고 불교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뜻있는 불자들은 순수한 불교행사가 대선 유세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자신의 종교를 떠나 불교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자리를 축하하기 보다는, 단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자리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다.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 대불교 공약을 내세웠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상심을 되찾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이제는 그만 보고 싶다. 또한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들이 대선 후보가 마련한 자리에 분별없이 참석하거나, 정당 사무실을 찾는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심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사찰, 법회장 방문은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를 의식해 찾는 것이라면 억지로 올 필요가 없다. 굳이 불교행사에 얼굴을 내밀지 않더라도 불자들은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하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병영(취재1부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29)37-5679 강원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울진: (055)353-1196

도난·도굴문화재 은닉자도 처벌

공소시효기간 수사기관이 발견때 부터 시작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국회 문광위 통과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강력 처벌이 나왔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0월 3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자기가 훔치지 않았더라도 도난 또는 도굴 문화재를 은닉하거나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문화재 도난·도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실상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번 주 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된다.

문화관광위원회는 문화재청과 한나라당 고홍길 의원,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이 제출한 문화재보

호법 중 개정법안을 통한 심의한 결과, 도난·도굴 문화재를 은닉·보관한 사람은 그 이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 행해진 절취·도굴행위 등이 처벌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은닉·보관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81조 4.5항 및 82조 4.5항을 조항을 신설했다.

그 동안 문화재 도난·도굴범들은 훔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후 시중에 유통시키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처음 훔친 사람이 누군지 찾지 못해 처벌하지 못하면 도난 문

화재인 줄 알고 산 사람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때문에 이 개정안은 문화재 도난과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도난문화재인 줄 모르고 구입했을 때의 문화재 회수, 발견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할 경우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법사위 심의에서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은 '법사위 심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공소시효 문제는 도난범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사찰소장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 방지와 도난문화재 회수를 위해 종단에서 절기차게 요구해 온 부분'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정 문화재에 한해서는 민법상 선의취득 조항에 예외를 두는 것 등의 후속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이 국회 문광위를 통과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이밖에 민간기구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공익 법인으로 전환하고,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존지대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해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nia.com

진각종 독자 군승파송 가능

군인사법 개정안 등 통과 편입대상·선발기준 심의

불교 개신교 천주교 3대 종교에만 적용돼 온 군종장교 제도가 다른 종교단체에도 개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0월 31일 회의를 열고 승려 목사 신부 외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타종교 성직지도 군종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따르면, 군종사관후보생 자격은 '승려 목사 신부'로만 못 박고 있던 조항을 '그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선발 대상은 '4년제 불교대학, 신학대학 등의 재학생'을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과 논란을 빚어온 진각종 정사의 군종장교 자격 시비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물론 진각종의 독자적인 군승파송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조계종은 군인사법상 군종장교 자격 사항에 '정사'라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진각종이 요구한 군승파송 종단지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처리된 병역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법사위의 법률검토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국방부 산하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군종장교 편입대상 장교 지정 및 선발기준 등을 심의키로 했다.

김철우 기자

춘천불교방송 송출 시작

1일 개국법회, 난청 흥천에 중계소 추진

춘천불교방송이 1일 오전 10시 송출식을 갖고 개국했다. 호출번호 HLQM, 주파수 FM 100.1MHz로 방송을 시작한 춘천불교방송의 가정지역은 춘천, 인제, 흥천, 화천 지역과 경기도 가평, 양평 지역이다.

이날 개국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 및 송출식에는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스님, 신홍수 회주 오현스님, 불교방송 김규철 사장, 대구불교방송 총괄국장 정수스님, 광주불교방송 이상진 사장, 청주불교

방송 사장 현중스님, 대구불교방송 운영위원장 법타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강원도 백령문화관에서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된 개국법회에서 오현스님은 "보통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처님 법을 듣고 법을 전하는 소용공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방송은 춘천불교방송 개국과 동시에 난청지역인 흥천 방면의

방송수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흥천중계소 설립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불교방송은 10월 29일 방송위원회로부터 안동 포함 두 곳의 중계소 설립을 허가추천됨에 따라 11월 중으로 정보통신부에 무선국 허가신청을 낼 예정이다. 주파수 및 출력확정 방안이 중계소 설립이 끝나는 내년 6월경에는 이들 중계소에서 방송 송신이 가능해진다.

춘천=김지연 기자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불교방송서 11~14일

불교방송, 불교TV, 불기협이 공동주최하는 제16대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열린다.

불교방송을 통해 저녁 7시20분부터 100분간 방송될 토론회는 △11일-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12일-민주당 노무현 후보 △13일-무소속 정몽준 후보 △14일-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순으로 진행된다.

패널로는 △정치분야-동국대 정용길 교수 △경제분야-동국대 장오현 교수 △사회분야-이각범 IT전략연구원장 △문화, 종교분야-영남대 등이 참여한다.

김지연 기자



○1일 열린 춘천불교방송 개국 행사에 참석한 불교계 인사들이 개국을 알리는 송출버튼을 누르고 있다. 왼쪽부터 불교방송 김규철 사장, 신홍수 회주 오현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스님, 광주불교방송 이상진 사장, 춘천=고영배 기자



한중일 스님들, 세계 평화 기원 제5회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 참가한 3국 불교계 지도자들은 10월 29일 강남 봉은사에서 '세계평화기원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지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운산태고종 총무원장, 운덕천태종 총무원장, 효암진각종 총무원장, 수예청(佛敎) 중국대표단 부단장, 고바야시 류우소(小柳 柳) 일본대표단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 기사 3면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 13대 중회의원 81명 선출

투표율 72.4%... 개원법회 9일 조계사에서

조계종 제13대 중앙중회의원 선출 개원법회 10월 31일 각 교구본사별로 일제히 실시돼 51명의 당선자를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10월 27일 선출된 30명의 직능직 중회의원을 합해 모두 81명의 중앙중회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선거는 직할교구를 비롯해 동화사, 범어사 등 모두 15개 교구에서 투표가 실시됐으며, 해인사, 광개사 등 9개 교구본사는 2명의 후보자가 출마, 투표없이 당선됐다. 전국적으로는 유효선거인 3,229

명 중 2,339명이 투표에 참가, 72.4%의 평균투표율을 보였으며, 직선직에 입후보한 87명의 후보자 중 9명이 선거권 사퇴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까지 선거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하며, 이를 심의해 7일 최종 당선자를 확정 발표한다.

한편 조계종 제13대 중앙중회의는 9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갖는다.

<=관련 기사 3·4면, 중회의원 명단 6면> 한명우 기자

제2회 국제원효학회 학술대회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nhyo Studies

일시: 2002년 11월 12일(화) 오후 1:00 ~ 6:00
장소: 동국대학교 예술극장 및 다량관 세미나실

원효전서 영역의 지구촌 시대적 의미와 번역상 문제점

English Translation of Complete Works of Wonhyo : Its Significance and Issues in the Global Era

첫 번째 날 11월 12일 (화) 동국대 예술극장

- 개회식 오후 1:00~2:00
사회 | 김용표(동국대)
개회사 | Robert L. McGrath(Provost of SUNY at Stony Brook)
치사 | 오복민(동국학원 이사장)
기조강연 1 | 원효사상의 세계성과 현대성(한국본부: 동국대학교 송석구 총장)
기조강연 2 | 원효전서 영역 한계와 공헌(미국본부: 뉴욕주립대 전현 교수)
원효전서 영역사업 보고 | 조상택(고려대)
- 주제발표 및 토론 오후 2:00~6:00
제1주제 | 대승기신론소에 나타난 원효의 신앙체계 | 오후 2:00~3:30
발표 | 박성배(SUNY at Stony Brook)
논평 | 이항래(송남대) / 강건기(전북대) / 전해주(동국대) / 박태원(울산대) / 고영섭(동국대)
사회 | 전현(SUNY at Stony Brook)

두 번째 날 11월 13일 (수)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

- 원효전서 번역 Workshop | 원효전서 영역의 문제점 | 오전 9:00~10:30
Volume 1. 번역자 | 박성배(SUNY at Stony Brook)
Volume 2. 번역자 | Robert Buswell(UCLA)
Volume 3. 번역자 | Cuong Nguyen(George Mason University) / 완원철(서울대) / Charles Muller(Toyo Gakuin University)

- Volume 4. 번역자 | 조상택(고려대) / Lewis Lancaster(UC at Berkeley) / 김용표(동국대) / John McRae(Indiana University) / Pokan Chou(National Taiwan University) / 박진영(American University)
- Volume 5. 번역자 | Robert Buswell(UCLA) / 조운수(University of Michigan) / Bernard Faure(Stanford University) / Richard McBride(University of Iowa) / John McRae(Indiana University) / Bruce Williams(UC at Berkeley)

- 원효전서 출판에 대하여 | 오전 10:30~11:00
사회 | Robert Buswell(UCLA)
- 전체토론 | 원효학 연구의 미래 | 오전 11:15 ~ 오후 12:30
사회 | 박성배(SUNY at Stony Brook)
토론 | Robert Buswell(UCLA) / Lewis Lancaster(UC at Berkeley) / Pokan Chou(National Taiwan University) / 권기종(동국대) / 서윤길(동국대) / 김학성(서강대) / 강건기(전북대) / 전현(SUNY at Stony Brook) / 이원삼(동국대) / 정병호(동국대) / 이원태(충남대) / 한보경(동국대) / 심재용(서울대) / 문병희(서울교육대) / 김신민(동국대) / 김성현(동국대) / 허우성(경북대) / 전해주(동국대) / 김용표(동국대) / 완원철(서울대) / 조상택(고려대) / 최경준(동국대) / 최유진(경남대) / 박진영(American University) / 박태원(울산대) / 우재선(동국대) / 고영섭(동국대)